

◆ County Library and Now Community Movement

새 마을 운동과 郡立圖書館의 役割

姜 禮 權
(全南 康津郡立 圖書館長)

1

지금까지 農村을 이야기 하는데는 유쾌한 言語보다 우울한 表現이 앞서야 했다.

貧困·落後·停滯·無知 등 확실히 우리의 農村은 5千年 太古以來 아직도 큰 變化와 發展을 外面한채 제 자리에서 踏步해 왔다.

마을에서 살고 간 어느 祖上이 한 때나마 가난을 가시고자 삶의 困惑을 씻어보고자 뜻을 풀고 애써 본 일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마을은 지금쯤 무엇인가 달라져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代代로 주어진 狀況에 매달려 그것에 滿足하거나 現狀維持에 허덕이면서 고루한 思考와 因襲에만 얽매었던 그 安易한 生活姿勢가 우리의 農村을 이렇듯 落後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貧困·落後·停滯·無知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數千年동안 忘却의 餘白속에 깊이 파묻어 두었던 갈사는 새마을 건설의 꿈을 實現하려는 거센 새마을 운동이 躍動하는 봄의 大地위에 遼遠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그토록 가난의 념새를 풍기면서 도사리고 있었던 이끼 낀 農村의 돌담이 헐리고 이즈러진 草家지붕이 하나씩·하나씩 스테트 기와로 또는 양철 지붕으로 改良되어 가고 있으며 5千年的 停滯와 서글픔을 象徵하는 비좁고 굵은 마을 안 길도 그리고 農路가 또한 오솔길이 트럭·택시·리어카가 드나들수 있도록 활짝 넓히는 活氣찬 協同作業이 마을마다 한창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새마을운동은 都市민들도 마찬가지지만 農漁民들의 「마음의 貧困」에서 싹트이기 쉬운 意慾의 喪失症에 새바람과 活力素를 불어 넣고 있으며 활기찬 生産과 文化農村建設 「무드」를 造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革新的인 새마을운동이 일기 시작하므로써 계층과 利己主義와 依他心이, 그리고 農閑期라는 날말이 사라져 가고, 배우면서 일하자는 自覺과 함께 自助·自立·協同의 새氣風이 마을마다 세차게 일고 있다.

새마을 운동은 自助·自立·自衛·協同이라는 새마을을 精神을 일깨우는 「캠페인」임과 同時에 生産과 文化生活 向上과 直結된 事業을 成功的으로 展開하자는데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 운동은 決코 農村에 局限된 運動이 아니요 國民全體가 내自身 부터 內家庭에서 부터 革新的인 바람을 일으키는 汎國民的인 動運으로써, 國家安保·總力安保의 原動力을 이룩하는 精神과 物資의 “에너지”를 蓄積하는 運動임과 同時에 農村近代化와 民族中興의 成敗를 판가름하는 一大民族運動인 것이다.

政府에서는 그 동안 都市·農村을 막론하고 온國民의 마음속에 上述한 새마을 精神을 點火시키고 民族的 自覺運動으로 昇華시키기 위해서 이 새마을 운동에 國政의 最大力點을 두고 있으며 새마을 事業을 國力の 伸張을 左右하는 中核으로 規定짓고 全 行政力을 이에 集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全國적으로 展開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各地方의 特性과 適性을 참작해서 効果적인 새마을 事業이 推進되고 있으나 새마을 운동 推進基本方向은 대충 다음과 같은 것으로 集約되고 있다.

새마을 운동 推進에 있어서 第一項에 強調되고 있는 것이 精神開發에 관한 事項으로서

1. 貯蓄運動의 展開
 - 마을金庫의 擴張
 - 1家口 1通帳制 實施
 - 농악 놀이와 節米運動
2. 健全한 社會運動의 展開
 - 家庭儀禮 準則 實踐
 - 도박 안하기(화투 不買運動)
 - 混粉食·공기 밥 먹기·반찬 즐기기
 - 遊興을 위한 술 안마시기
 - ◎ 마을文庫 設置와 책 읽기 運動
 - 노는 사람 없는 마을
3. 協同精神 높이기 運動

- 새마을 建設團, 어린이團 組織
 - 내고장 돕기 運動(客地 外國 등에 살고 있는 鄉土出身)
 - 새마을의 날 運營
4. 새마을 事業教育
- 指導者 教育
 - 住民 教育
 - 公務員 教育

二. 環境 衛生

- 새마을 가꾸기 事業推進
- 農路 開設事業 推進
- 草家 지붕 改良事業 推進
 生産·所得向上과 其他事業
- 1里 1副業 勸獎
- 有實樹 植樹運動(穀樹村造成)
- 메탄 가스 利用施設
- 簡易 上水道 및 衛生 우물
- 새마을 서비스 센터 운영

以上과 같이 새마을運動의 概念과 그 推進方向을 살펴보면 이 運動은 우리 政府가 第3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 三大重點施策의 하나인 「農漁村의 革新的인 開發」의 基本作業이라 하겠고 새마을 精神과 開拓意慾이 旺盛한 마을부터 優先的으로 投資해서 近代化된 農村을 만들고 점차 다른 마을로 波及 擴大해 가는 經濟開發과 精神開發의 併行運動인 것이다.

그러나 이 運動의 基本的인 性格에 對해서 朴大統領閣下께서는 「새마을 事業의 目標은 經濟的인 側面보다는 住民들의 協同精神·團結心 그리고 自助精神을 북돋우자는데 있다」라고 이 運動에 대한 價値觀을 定立해 놓고 있다.

2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祖國近代化의 運動을 판가름하는 새마을 運動은 바로 「새마을精神의 開發」에 主眼點을 두고 있다. 우리 農村近代化의 “Keypoint”는 『農民들의 自助·自立·協同하는 精神』에 있으며 그것이 곧 『새마을 精神』의 核이 되고 있다.

수많은 開發經濟學자들이 停滯社會를 發展社會로 離陸시키는 힘의 基本은 國民의 精神的 構造變化에 있다고 主張했으며, 그 中에도 農民大衆의 意慾開發이 가장 어렵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렇다면 發展과 開發意慾을 誘發하는 精神開發을 促求하는 힘의 源泉을 어디에다 設定할 것인가가 問題된다. 앞서 記述한 運動推進基本方向 가운데 精神開發을 誘導하거나 促求하는 要素로써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事業教育」項에

나타난 指導者教育과 住民教育, 公務員教育이라 하겠고 「健全한 社會運動 展開」項에 浮刻된 『마을文庫 設置와 책 읽기 運動의 展開』뿐이다. 새마을 運動의 最一線에서 直接 마을에 뛰어 다니면서 參與하고 있는 筆者가 그동안 피부로 느껴온 問題點은, 새마을運動이 지나치게 經濟的, 物量的, 外形的 側面 一邊倒로 치닫고 있다는 點과 가장 所重한 精神開發分野가 疎忽히 다루어진 나머지 精神的 側面이 차츰 褪色되어 가는 傾向이 엿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새마을 指導者를 中核으로 하는 事業推進도 이 運動의 成敗를 左右하는 要件이 된다는 것에는 異議가 없고 또한 指導者가 主導하는 住民教育도 반드시 實施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短期的인 또는 一時的인 效果는 期待할 수 있으나 決코 長期的, 持續的인 效果는 바랄수 없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비전」이 있는 識者들이 共通的으로 渴望하고 있는 것은 近代化의 源泉의 힘의 구실을 遂行하며 새마을 運動의 精神的 資源開發의 母體가 되는 地方公共圖書館과 두메 산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小圖書館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마을文庫의 設置運營을 서둘러 地方公共圖書館과 마을文庫와 直結된 運營體制를 갖추어, 이것을 據點으로 國民讀書運動을 展開하자는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마을 運動에 뒤 따르는 精神開發과 開拓意慾과 生産과 直結된 모든 建設事業이 必要로 하는 基礎知識 등이 要求하고 있는 內容을 多樣하고 充實하게 供給해 줄 수 있는 精神資源의 센터, 情報 센터로서 公共圖書館과 마을文庫는 있어야 한다는 것 보 다 없어서는 안될 文化施設인 것이다. 農村近代化를 促進하는 새마을 運動은 農民大衆의 自主的 覺醒이 原動力이 되어야하는데 그 自主的 意慾開發을 誘導하는 確實하고 唯一한 據點으로서 公共圖書館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벤마크」의 開拓期에 또한 「이스라엘」 開拓史에 核心的인 記錄으로 남아있는 公共圖書館의 活動과 讀書運動이 얼마나 偉大한 힘을 發揮했는가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다.

새마을 運動을 推進함에 있어서 그 原動力이 되는 精神과 物質과 技術에 관한 綜合的인 資料를 提供하는 公共圖書館과 마을文庫의 必要性을 모두가 切實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公共圖書館의 設置運營에 막상 부딪혔을때 이것을 外面하고 뒤로 미루는 일이 茶飯事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傾向은 한마디로 價値意識의 貧困에서 빚어진 현상이라 하겠고 近代化作業의 優先順位에 커다란 錯誤를 犯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 都市나 農村할 것 없이 國民들의 讀書不在現像은 물론 深化擴大되어 가고 있는 實情下에 있다. 이것은 國民들이 平生教育에 대한 價値觀의 貧困에서 책을 外面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지만, 그것보다도 黃金萬能主義, 實利主義, 享樂主義가 社會底邊에 뿌리 깊게 蔓延되어 있고, 物質文明과 經濟建設「붐」에서 派生된 生活態度的 타락相…… 社會教育의 貧弱性등에서 그 原因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讀書不在現像의 第1次的인 原因은 國民讀書運動을 組織的으로 主導해야 할 公共圖書館이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寒心할 程度로 貧弱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글픈 虛點을 全國的으로 二萬個所以上에 設置된 마을文庫網이 部分的으로 讀書人口를 救濟하고 있는 것은 讀書에 대한 韓國의 體面을 最少限 維持시키고 있다고나 할까? 그것도 特히 農村에서 讀書人口를 開發하고 있기에 얼마나 多幸한 노릇이겠는가. 지금 한창 새마을 運動이 全國坊坊曲曲에서 展開되고 있지만은 그들 農民들의 開拓精神을 올바르게 定立시키고 그리고 長期的으로 새마을 精神을 土着化시키고, 冷却되지 않고 中斷되지 않도록 이끌어 가는 힘은 오직 책을 통해서, 책을 읽는 生活習慣을 복돋아 주는데서 期待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책만이 삶의 智慧와 앞날에 대한 希望과 生活哲學과 開拓精神을 일깨워 주는 偉大한 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 精神의 바탕을 構築하여 주고 開發에 뒤따르는 어려운 課題를 解決하는 슬기와 技術을 提供해주는 公共圖書館이 時急히 設置되고 알차게 運營될수 있는 制度的 뒷받침이 早速히 이루어 져야 하겠다. 특히 都市와 農村間의 經濟的, 文化的 格差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農漁村을 奉仕對象으로 하는 地方圖書館의 設置運營이 緊急이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3

敗戰以後 讀書運動을 시작한지 22년이 되는 이웃 日本의 境遇, 70年度 現在 讀書人口의 75%에 이르고 있다. 日本이 그처럼 책을 읽는 國民習性을 길러 낼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國民들이 책을 반드시 平素에 읽어야 한다는 價値意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讀書運動이 成功的으로 進行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책을 읽어한다는 國民들의 잠재의식을 効率的으로 誘導한 社會教育政策의 果敢한 實踐性과 持續性이 있었고 이에 따른 社會教育施設과 事業活動에 餘裕있는 投資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고 投資率도 都市와 農村에 均等하게 配分한것이다. 그러한 行政의 財政的 支援力을 土臺로 社會教育機關과 學校와 一般家庭이 密接하게 連結되어서 多樣性있는 讀書 Group活動

을 組織的으로 착실하게 展開하고 助長하면서 公共圖書館이 主導하는 讀書會網을 全國的으로 造成시킴으로써 책을 읽는 國民性을 길러 낸 것이다. 日本에서는 都市나 農村을 가리지 않고 모든 社會組織體와 連結하여 公共圖書館이 最大限의 機動力과 奉仕機能을 發揮하여 讀書會의 組織的인 活動을 指導하고 支援함으로써 讀書人口 底邊擴大에 成果를 期하였고 그러한 國民讀書運動이 오늘의 經濟大國으로 成長케 한 精神的인 밑바탕을 이룬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現實은 實際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公共圖書館이 人口 150萬에 不過 1個館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農村을 對象으로 奉仕하고 있는 圖書館이 3~4個館뿐이며 그것도 藏書不足·豫算·人員·施設의 貧困은 勿論 移動自動車 文庫(Book mobile) 한臺 조차 마련할 수 없는 狀況下에서 現狀維持에 허덕이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現在와 같은 公共圖書館의 極端的인 貧困性 아래서, 새마을 運動에, 必須不可缺한 精神資源開發의 母體로서의 公共圖書館 活動을 云謂할 意慾이 없다 하겠으나, 將次年次의 計劃에 의해서 設置되는 地方公共圖書館의 活動에 多少의 參考가 되는 事項을 略記하고자 한다.

都市도 마찬가지로 特히 農村地域을 奉仕對象으로 하는 地方 公共圖書館은, 지금까지의 公共圖書館의 運營概念을 根本的으로 修正하지 않는다면 그 存在意義를 喪失하고 만다. 能動的인 館外奉仕를 遂行할 수 없는 地方 圖書館은 學生들의 공부방 구실 밖에 되지 않은 停滯性을 면치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圖書館 運營의 基本方針을 館外 活動에 重點을 두고 적극적인 奉仕業務를 遂行해야만 한다. 館外 奉仕活動은 마을마다 設置된 마을文庫를 對象으로 하고 그것을 中心으로 組織된 讀書會를 指導하고 支援하는 任務를 遂行하는 것이다. 地方公共圖書館이 마을文庫의 Center로서, 마을에서 小圖書館 機能을 지니고 있는 마을文庫를 Service point로 하여 圖書貸出을 果敢히 實施하고, 讀書會를 効率的으로 運營할수 있도록 側面에서 指導하고 助言하는 任務를 平준히 遂行해야 한다. 組織活動에 未熟한 農村住民들을 바람직한 讀書會로 成長시키는데는, 相當한 期間동안 難關과 隘路가 따른다는 覺悟를 豫測해야 하고, 勇氣와 執念과 熱誠과 忍耐없는 所期の 成果를 바랄수 없는 것이 바로 地方公共圖書館의 館外活動임을 알아야 한다. 移動自動車 文庫가 있다면 그러한 苦難의 一部分을 덜수 있고 活動과 成果面에도 能率을 期할 수 있지만, 現在와 같은 移動自動車文庫가 없고 豫算·財政의 뒷받침이 充足하지 못한 形便下에서는 公共圖書館도 自助·自立하는 새마을 精神을 간직하고 試鍊과 苦難의 十字架를 메고 奉仕任務를 遂行해야만 새마을 運動에 副應하는 最少限의 活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正直한 말이 될 것이다.

마을文庫에 貸出할 圖書를 「버스」로 面所在地까지 運搬해야하고 面事務所 會議室에 마을文庫 讀書會長을 召集해서 圖書의 貸出과 返納業務를 遂行하는 한편 그 面單位로 開催되는 讀書會長 會議에서 讀書會員들이 要求하는 圖書目錄을 蒐合하여 다음 會議때에 그 要求된 圖書를 貸出해 주도록 해야한다. 貸出圖書는 農村社會에서 必要로 하는 適合하고 多様な 資料를 選擇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마을마다 各各 相異한 副業이 造成되고 生産基盤도 마을마다 다르다는 點을 考慮하여 그 마을의 農業構造와 特性을 正確히 調査하고, 圖書館 藏書를 構成할 때 그 마을의 特殊性이 要求하는 資料를 豫測해서 미리 마련해 뒤야 한다.

4

새마을運動은 앞으로 農村近代化가 實現되는 그날까지 계속 推進될 것이다.

公共圖書館의 奉仕活動도 새마을運動의 推進方向과 共同步調를 맞추어 그것에 適應態勢를 確立해야 하고, 運營體制를 發展의으로 改善하는 努力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特히 새마을運動의 主體씨클로서 參與하고 있는 마을文庫 讀書會의 育成強化에 地方公共圖書館은 最大力點을 두고 第一義的인 奉仕任務를 遂行해야 한다. 그러한 任務를 成功的으로 바람직하게 遂行하기 위해서는 마을文庫讀書會를 指導 育成할 수 있는 有能한 圖書館職員을 確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라고 하겠다. 마을文庫 讀書會를 育成시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指導力과 精神的 姿勢가 確立된 圖書館 職員이 要求되는 것이므로 圖書館職員의 資質問題는 가장 時急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마을文庫 讀書會를 指導하는 圖書館職員의 資質具備要件은

- (1) 讀書에 關한 廣範圍한 知識이 있어야 한다.
- (2) 多目的인 指導能力이 있어야 한다.

(3) 對人接觸에 있어서 통찰력과 說得力이 있어야 하며 부드럽고 親切味가 있는 性格의 所有者라야 한다.

(4) 언변과 文章力이 있어야 한다.

(5) 組織的인 思考力을 가져야 한다.

(6) 사람을 재미있게 다루는 手法을 알고 있어야 한다.

(7) 執念이 強하고 熱誠의이어야 한다.

(8) 勇氣와 忍耐力이 強해야 한다.

(9) 讀書씨클의 運營과 지도方法을 研究하는 계속적인 努力이 필요하다.

以上과 같은 資質要件을 갖춘 完全無缺한 職員을 발굴 確保하기란 容易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資質을 最少限度라도 갖추고 있는 職員을 발굴하고 養成해서 確保할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나 待遇面에서 特別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特히 마을文庫 讀書會는 自助·自立·協同하는 精神으로 自體圖書를 늘리는 活動으로 마을文庫를 發展 維持해 나가는 一次的인 努力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自動車文庫의 圖書貸出의 延長으로서 公共圖書館의 支援과 指導로서 發展하고 存續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既設 公共圖書館은 勿論이요 앞으로 新設되는 地方公共圖書館에도 義務의으로 自動車文庫를 運營해야 한다는 規定을 定立하고 이에 대한 豫算이 充分히 뒷받침 되었을 때, 새마을 運動에 寄與하는 公共圖書館의 任務와 使命을 能率의으로 바람직하게 完遂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마다 開發의 核이며 핵불이 될 수 있는 마을文庫 讀書會를 심고 「새마을精神」을 農村 구석 구석까지 充滿케 하여 모름지기 이 運動이 都市와 農村, 都市民과 農民의 區別없는 汎國民的 運動으로 發展 昇華되어 기필 우리世代에 웃음짓고 福되게 살아가는 호젓한 農村의 情景를 바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叡知와 힘 을 모아야 겠다.

원 고 모 집

한국비블리오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1. 주 제 : 내용은 자유로 하되 연구논문엔 한함.
- 2. 원고매수 : 50매 내의 (20×10)
- 3. 제출마감 : 1972년 6월 30일까지
- 4. 제출장소 :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내 한국 비블리오회
- 5. 기 타 : 원고를 보내 주실 때는 반드시 본인 사진(명함판) 1매와 직장명 (연락처·참고사항)을 명기 할 것.
- 6. 연 락 처 :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장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2) 2721~9.